

제1 교시

국어 영역 (B형)

[1~3] 다음은 학급 회의 시간에 학생들이 실시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요즘 휴대 전화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과 중에는 휴대 전화를 일괄 수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이 부분별하게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주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어 교실 내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휴대 전화를 일괄 수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서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2배가 넘는 14%가 휴대 전화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가 가장 높은 중독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만큼은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휴대 전화 수거로 인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일과 중에도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교내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2: 반대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찬성 1: 물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1: 반대 측 입론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휴대 전화로 수업 시간에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동영상도 보거나 자료 제작 등과 같은 학습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면서까지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휴대 전화 사용 예절을 교육하여 학생이 스스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키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어떤 반에서는 수거한 휴대 전화를 잃어버려 곤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거한 휴대 전화의 보관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휴대 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반대합니다.

찬성 2: 찬성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 (후략)

1. 위 토론 참여자들의 말하기에 대한 청중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토론 주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군.
- ② '찬성 1'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대안을 밝히고 있군.
- ③ '찬성 1'은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군.
- ④ '반대 1'은 대상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주장을 제시하고 있군.
- ⑤ '반대 1'은 찬성 측이 논거로 제시한 것을 일일이 반박하고 있군.

2. <보기>는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교는 학교 규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 전화, 태블릿 PC, MP3 등을 수거하여 보관할 때, 잠금 장치가 잘 된 곳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교사가 학생의 전자 기기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하게 되면 한 학교당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 ○○신문

- ① 찬성 측에서 반대 측이 주장하는 휴대 전화 수거의 문제점에 대한 논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찬성 측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 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급 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반대 측에서 휴대 전화 사용 예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반대 측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반대 측에서 급한 용무에 따라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논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3. ㉠에 들어갈 확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개인의 자유 제한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② 휴대 전화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③ 정보 소양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④ 휴대 전화를 수거하지 않으면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 ⑤ 수업 시간에 휴대 전화를 활용하게 하면 학습 도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학교에만 오면 목이 따갑거나 기침과 재채기를 심하게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많은 학생이 손을 드는 것을 보고) 그런 증세는 호흡기가 우리에게 이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지역 초·중·고 724개 학교 가운데 11.6%의 학교가 미세 먼지 기준치인 1㎍/㎥ 150㎍을 초과했고, 50.4%의 학교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기준치인 1,0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미세 먼지가 무엇인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은 3,000배로 확대한 미세 먼지입니다. 미세 먼지는 직경이 10㎍이하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고체나 액체 알갱이를 말합니다. 미세 먼지에는 중금속과 각종 부유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심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죽음의 먼지', 미국에서는 '조용한 살인자'로 불립니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건물 실내의 환기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환기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으로 교실 내의 미세 먼지와 같은 오염 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실의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 먼지를 배출하고 물청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냉난방 장치의 필터를 청소하고 녹색 식물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공기 질 개선 방법입니다. 교실 내 공기 질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염 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실이 답답해 하면 우리들도 답답해집니다. 이제 교실이 숨을 쉬게 합시다.

4. 학생이 발표를 위해 계획한 메모이다.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교실 내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①
- ◆ 교실 내 공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야겠군. ②
- ◆ 외국에서도 미세 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다루어야겠군. ③
- ◆ 이산화탄소 농도로 교실 내 환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군. ④
- ◆ 교실 내 공기의 오염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해야겠군. ⑤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들도록 하였다.
- ② 전문가의 이론을 인용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신뢰도를 높였다.
- ③ 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여 발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였다.
- ④ 발표 주제의 의의를 말하고 비유적 표현으로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 ⑤ 사적인 상황에 어울리는 호칭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청중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6~7] <보기 1>은 '기부 문화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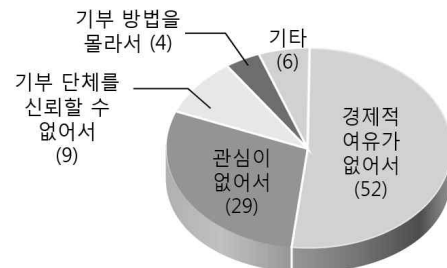
<보기 1>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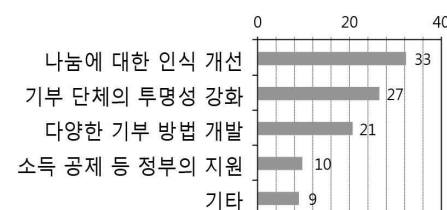
지난해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국가의 국민은 70%, 우리나라는 36%가 참여했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 교수는 모금 단체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고 일반인들은 기부라고 하면 큰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부에 소극적이고 기부를 하더라도 일회적이며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나) 설문 조사 자료

1. 일반인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



2.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 (%)



(다) 우수 사례

- △△시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과 노숙자 등 100여 명이 폐지를 모아 번 돈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큰 기쁨과 보람을 얻었다고 한다.
- 외국에서는 나눔이 생활화되어 있어 자발적인 소모임 중심으로 기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 재능 기부, 교육 기부,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남을 돕는 보람과 삶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보기 2>

I. 서론

II. 본론

- 1. 현황 및 실태㉠
- 2. 문제점 분석
 - 가. 의식 측면㉡
 - 나. 운영 측면
 - 다. 제도 측면
- 3. 활성화 방안
 - 가. 의식 측면㉢
 - 나. 운영 측면㉣
 - 다. 제도 측면㉤

III. 결론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기부 참여율이 낮고 기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기부 참여의 저조와 기부 시기의 편중'을 현황 및 실태로 다룬다.
 - ② (가)와 (나)-1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기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입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기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부족' 문제를 다룬다.
 - ③ (다)에서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기부를 생활화할 때 보람을 얻는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기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전환' 방안을 다룬다.
 - ④ (나)-2와 (다)에서 기부의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기부 유형과 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다룬다.
 - ⑤ (가)와 (나)-2에서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기부 단체에 대한 신뢰성이 약하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복지 제도 확대 시행' 방안을 다룬다.

7. <보기 2>의 'I. 서론'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기부의 의의가 드러나게 할 것.
-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드러낼 것.

- ①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면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다.
- ② 모든 일은 차근차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어려워하지 말고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듯 이제 사랑을 실천해 보자.
- ③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작은 나눔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 ④ 기부는 남을 돕지만 자신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보자.
- ⑤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이웃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지역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웃과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 다음은 '원문'에 대한 '요약문'을 쓴 것이다. '요약문'에 활용된 전략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묶은 것은?

원문

심리학자들은 학습 이후 망각이 생기는 심리적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앞서 배운 내용이 나중에 공부한 내용을 밀어내는 순행 억제, 뒤에 배운 내용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는 역행 억제, 또한 공부한 두 내용이 서로 비슷해 간섭이 일어나는 유사 억제 등이 작용해 기억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망각을 뇌 속에서 어떤 기억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억을 담고 있는 세포들은 내용물을 흘려버리지 않는다. 기억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 기억해 내려고 애쓰는데도 찾지 못하는 것은 기억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한 내용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다면 학습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기억해 낼 수 있다.

요약문

망각을 일으키는 심리적 억제들이 기억을 방해하지만,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뒤섞여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학습한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한다면 이를 통해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낼 수 있다.

<보 기>

- ㄱ.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리한다.
- ㄴ. 열거된 내용을 중심 개념으로 포괄하여 간략하게 제시한다.
- ㄷ. 원문의 문장 그대로가 아닌 자신이 이해한 말로 바꿔 쓴다.
- ㄹ. 원문의 제시 순서를 바꾸어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달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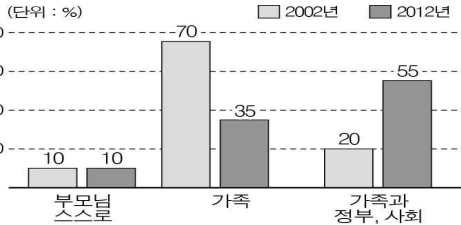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두 자료를 활용하여 '효'에 대한 글을 써보자.

[도표] 부모의 노후 생계 책임에 대한 청소년 의식 조사



- 통계청, 2012

[신문 기사]

고등학교 2학년인 김 군(18, 남)은 간경화로 힘들게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하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다.
- ○○신문 기사 중

작문 일지

오늘의 작문 과제는 두 자료를 활용하여 '효'에 대한 글의 처음 부분을 쓰는 것이었다. 두 자료에 나타난 효에 대한 인식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먼저 도표를 활용하여 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이 달라졌음을 제시하며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신문 기사만 활용하기엔 자료가 부족하여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효행 자료를 보충하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여전히 자신을 희생하여 효를 실천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효의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효의 실천이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의 방법'이라는 중심 화제를 제시하며 글을 썼다.

학생의 글

제목: 효, 일상에서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

통계청이 최근 10년 사이에 나타난 청소년의 의식 변화를 ㉠분류한 자료를 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2002년 70%에서 2012년에는 35%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 우선이다.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효에 대한 인식 변화는 충격이었다. 그런데 간경화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간을 기증한 고등학생의 훈훈한 기사도 있었다. 또한 어느 병원의 자료에는 장기 기증자 중 53.1%가 자녀라고 나왔다. 이런 것을 보면 ㉣여전히 효를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효의 방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9. '작문 일지'를 참조하여 학생의 글쓰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중심 화제와 관련된 제목을 정하여 글의 방향을 제시하였군.
- ② 도표의 내용을 활용하여 효에 대한 글쓰기의 문제의식을 드러내었군.
- ③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의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하는군.
- ④ 효에 대해 유사한 태도가 나타난 두 자료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군.
- ⑤ 신문 기사만으로는 글감이 부족하여 보충 자료를 찾아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군.

10.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조사한'으로 바꾼다.
- ② ㉡: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③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부모님을'을 넣는다.
- ④ ㉣: 문장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비로소'로 고친다.
- ⑤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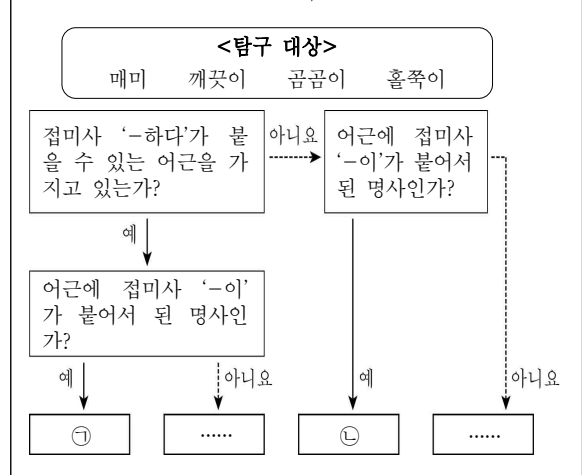
11. 다음을 참고하여 <보기>의 <탐구 대상>을 과정에 따라 탐구했을 때, ㉠과 ㉡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한글 맞춤법>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보 기>



- | | | | |
|---|-----|---|-----|
| ① | 훌쭉이 | ㉡ | 깨꽃이 |
| ② | 훌쭉이 | | 매미 |
| ③ | 곰곰이 | | 매미 |
| ④ | 깨꽃이 | | 훌쭉이 |
| ⑤ | 매미 | | 훌쭉이 |

12. 다음은 표준 발음법 조항의 일부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ㄴ’은 자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하고, ‘ㄴ’은 다 음과 같은 경우에 [ㄴ]으로 발음한다.

 ㄴ-죽하다 [넙쭈카다] ㄴ-등글다 [넙똥글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사과가 여덟 개 있다.
- ② 냇을 놓고 앉아 있었다.
- ③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
- ④ 동생이 발을 밟고 지나갔다.
- ⑤ 좋은 물건을 사느라고 비싼 값을 치렀다.

13. ㉠~㉥ 중 수정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토 사항	원래 문장	수정한 문장
시제 표현이 적절한가?	철수는 어제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간다.	㉠
피동 표현의 사용은 적절한가?	그가 다쳤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
조사의 쓰임이 적절한가?	언니는 자식으로써 마땅히 할 도리를 했다.	㉢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 적절한가?	나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다.	㉣
의미가 중복되는 어휘가 있는가?	그녀는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을 돌이켜 회상했다.	㉤

- ① ㉠: 철수는 어제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다.
- ② ㉡: 그가 다쳤다고는 믿겨지지 않는다.
- ③ ㉢: 언니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했다.
- ④ ㉣: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 ⑤ ㉤: 그녀는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14. <보기 1>의 자료를 읽고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절(節)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결합되어, 전체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 있는 형식을 말한다. 서술절은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서술절을 포함한 전체 문장은 겹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이상 나오는 문장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이외에 서술절(주어+서술어)을 지니고 있다.

————<보기 2>————

ㄱ. 토끼는 앞발이 짧다.
ㄴ. 이 산은 나무가 많다.
ㄷ.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다.

- ① ㄱ~ㄷ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 ② ㄱ의 ‘토끼는’은 전체 문장의 주어이다.
- ③ ㄴ의 ‘나무가 많다’는 전체 문장 속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 ④ ㄱ과 ㄴ은 서술절이 전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다.
- ⑤ ㄴ의 ‘나무가’와 ㄷ의 ‘대학생이’는 서술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1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가)~(마)에 대해 학생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담화 상황에서는 문장의 필수 성분일지라도 화자와 청자가 상황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생략이 가능할 때가 있다. 이때 성분 생략의 기본 요건은 복원 가능성이다. 즉 상황 맥락을 공유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는 생략된 성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어, 대화 참여자가 생략된 성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가) **선생님**: (깨끗한 교실을 보며) 누가 이 일을 했어요?
반 장: (철수가 청소한 것을 알고) 철수가요.

(나) **선생님**: (반장을 불러 심부름을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누가 이 일을 했어요?
반 장: (아무도 심부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 했어요.

(다) **선생님**: (신발장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좀 치워라.
반 장: (선생님이 책상에 널려 있는 책을 치우라는 것으로 알고) 네, 선생님.

(라) **선생님**: (신발장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좀 치워라.
반 장: (신발장을 보며) 네, 선생님.

(마) **선생님**: (신발장의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좀 치워라.
반 장: (신발장 정리를 끝내며) 끝냈어요.

- ① (가)와 (나)의 반장은 공통적으로 목적어를 생략하며 말하고 있군.
- ② (가), (나)를 보면 똑같은 형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생략된 문장 성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군.
- ③ (다)의 반장은 상황 맥락을 공유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군.
- ④ (라)의 반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생략하였다고 볼 수 있군.
- ⑤ (마)의 반장이 생략한 성분을 복원하여 말한다면 ‘제가 선생님께서 시키신 신발장 정리를 끝냈어요.’ 정도로 볼 수 있겠군.

16.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학생이 탐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훈민정음의 초성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중성은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초성은 ‘가획(加劃)’의 원리를 적용하여 가획자와 예외적인 글자인 이체자를 만들었고, 중성은 ‘합용(合用)’의 원리를 적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습니다. 중성은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서(이어 쓰기)’, ‘병서(나란히 쓰기)’, ‘부서(붙여 쓰기)’ 등의 방법으로 글자를 운용했습니다. 다음 예를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해 보십시오.			
원리	예시		
㉠ 가획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ㄴ	ㄷ, ㅌ	ㄹ
㉡ 합용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 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 연서	봉, 봉, 풍, 뽕		
㉣ 병서	ㄱ, ㄷ, ㅅ, ㅈ, ㅊ, ㅋ, ㆁ, ㄷ, ㅌ, ㄹ		
㉤ 부서	ㄱ, 가, 고, 거		

- ① ㉠과 ㉡의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지만, 초성은 가획의 방법으로, 중성은 합용의 방법으로 글자를 더 만들었겠군.
- ② ㉡의 초출자 ‘ㅏ’는 기본자 ‘·’와 ‘一’를 합해서 만들었겠군.
- ③ ㉢과 ㉣의 예를 보면 훈민정음 제작 당시는 현대 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자음도 사용했겠군.
- ④ ㉣의 예를 보면 병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적기도 하고 다른 글자를 나란히 적어 운용하기도 했군.
- ⑤ ㉤의 예는 초성의 아래나 왼쪽에 중성을 붙여서 사용한 것으로 현대 국어도 사용하는 글자 운용 방법이군.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책을 읽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글재주를 풍부히 하려는 것인가? 글 잘 짓는다는 명예를 얻으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학문을 닦고 연구하며 도(道)를 논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을 읽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사사로운 뜻이다. 일 년 내내 글을 읽어도 학업이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사사로운 뜻이 배움을 해치기 때문이다. 체자백가와 경전에서 그 배운 바를 시험하고자 하고, 공리(功利)에 급급하여 그 사사로운 뜻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독서가 해를 끼친 것이다.

책을 읽는 법은 일과(日課)를 정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질질 끄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많이 읽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속히 읽으려고도 하지 말라. 몇 줄을 읽을지 정하고 횟수를 정하여 날마다 읽어 가면 글의 의미에 정통

하게 되고, 글자의 음과 뜻이 익숙해져서 저절로 외우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책을 읽을 때에는 엄숙하고 공경스런 마음으로 책상을 마주한다. 이어 새로 읽을 글을 정하고 묵묵히 읽어 가되 몇 줄씩 단락을 끊어서 읽는다. 그런 다음 서산(書算)*은 덮어 밀쳐놓고, 가만히 훈고(訓詁)*를 따져 보며 세밀히 주석과 풀이를 훑어보아 그 차이를 분별하고, 그 음과 뜻을 깨우친다. 차분하고 느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제멋대로 이치에 당치 않는 주장을 펼치지 말고 억지로 의심하지 말 것이며,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생각해야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 박지원, 「원사(原士)」—

* 서산(書算): 책을 읽은 횟수를 세던 물건.

* 훈고(訓詁): 자구(字句)의 해석.

17. 윗글을 읽고 독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을 읽을 때에는 계획을 세워서 날마다 읽어야겠어.
- ② 책을 읽다가 글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반복해서 생각하며 읽어야겠어.
- ③ 책의 목차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대강 살핀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야겠어.
- ④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이나 풀이를 참고하며 읽어야겠어.
- ⑤ 책을 읽을 때에는 마음가짐을 바로한 뒤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책을 읽어야겠어.

18. 윗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에 대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문자를 훑어서 뇌에 입력하는 단순 작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탄하거나 비판하거나 상상하거나 다른 것을 꿈꾸면서 읽는다. 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씌어진 것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재구성한다. 읽는 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그 최종적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독서이다.

- ① A는 B에 비해 실용적인 정보를 얻는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A는 B에 비해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골라 읽는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B는 A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B는 A에 비해 독자의 생각으로 글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독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실천으로 옮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구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를 탐구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도덕적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의 전통적 도덕관을 비판하고 나선 니체는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삶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우선 니체는 주체를 도덕의 중심에 두고자 하여 인간을 ㉠주인적 개인과 ㉡노예적 개인으로 구분하였다. 인간의 내면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하고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인간의 행위는 그 결과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데 주인적 개인은 강한 의지로 자기 내면의 욕구를 제어하고 욕구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니체는 주인적 개인이 이와 같이 자기 지배력을 지니고 자신이 세운 삶의 원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은’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노예적 개인은 주인적 개인과 대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무리를 짓고 그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리의 평균적 가치를 따르며 자기를 제어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욕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런 노예적 개인을 니체는 병들었다고 하였으며 이들의 행위를 ‘나쁜’이라고 평가하였다.

니체가 제시하는 도덕의 최종 목적은 도덕의 주체를 주인적 개인으로 육성하는 데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적 개인이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니체는 양심을 건강한 주인적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외적 강제 없이 자신이 설정한 법칙에 따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노예적 개인은 자기 지배력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경우 노예적 개인은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니체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런 고통은 노예적 개인에게 자신이 지켜야 했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그러나 노예적 개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양심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는 훈육이나 양육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며 건강한 주인적 개인으로 거듭나려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예적 개인이 건강한 자기 지배력을 회복하면 주인적 개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니체는 도덕의 핵심을 주체의 문제로 돌려놓았다. 도덕은 보편타당한 것으로 따라야 하는 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주체적 의지가 나타나는가에 있다. 외적으로 주어진 규범이나 가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도덕인 것이다. 예술가가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개인 역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내면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충돌하고 있다.
- ② 서구의 전통적 도덕은 보편적인 규범을 제시하였다.
- ③ 니체는 주체 의지 유무에 따라 도덕적 평가를 다르게 했다.
- ④ 노예적 개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양심은 회복된다.
- ⑤ 니체는 도덕의 목적이 주체를 주인적 존재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한다.
- ② ㉡과 달리 ㉠은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른다.
- ③ ㉡과 달리 ㉠은 외적으로 주어진 규범을 준수한다.
- ④ ㉠은 무리에 의존하지만 ㉡은 무리를 배척한다.
- ⑤ ㉠은 욕구를 부정하지만 ㉡은 욕구를 긍정한다.

21. <보기>의 상황을 ‘니체’가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B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요양원에 봉사 활동을 다녔다. 어느 날 이들은 봉사 활동을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다. A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부상자들의 이송을 도왔다. B는 피곤하고 귀찮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따라 자리를 피하였고, 그날 밤 B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한 자신이 부끄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 ① A는 자신의 행동 원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했으므로 ‘좋은’으로 평가할 것이다.
- ② A가 주체적으로 타인을 도운 것은 절대적 가치를 따른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 ③ A는 자신과의 약속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의 소유자로 ‘양심’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 ④ B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 ⑤ B가 교육을 받고 양심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A와 같이 자기 지배력을 가진 존재로 변할 수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 수도 시설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가정마다 수동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사용했는데, 펌프질만으로는 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워 물 한 바가지를 넣어 펌프질을 했다. 이때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끔 도움을 주는 소량의 물이 바로 마중물이다. 이렇게 마중물과 같이 작은 자극이 원인이 되어 더 큰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마중물 효과라 한다.

처음 ㉠정부의 마중물 효과는 경제 불황의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재정 수입을 감소하는 등의 자극을 주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마중물 효과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넘어 장학 사업 같은 사회사업 분야 및 기업의 마케팅 활동 등 우리 생활 전반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기업은 마중물 효과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발히 사용하게 되었다.

기업이 마중물 효과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단순한 단기간의 이윤 증대가 아니다. 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마중물을 이용해 타사 제품에 비해 자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치를 홍보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평가를 높이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중물의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소비자의 꾸준한 구매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마중물을 활용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마중물 효과이다. 그래서 기업은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여 제품 체험 행사, 1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덤 마케팅, 대형 마트의 시식 행사, 할인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마중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 이때 소비자가 마중물을 힘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지나친 소비 활동을 하는 공돈 효과*를 일으킨다면 기업은 더

[A] 큰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마중물 마케팅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의도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마중물을 제공하지 않자 제품에 대한 구매가 원상태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하락했다면, 마중물 효과는 단지 광고나 판매 촉진 활동과 같은 일시적인 매출 증대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마중물에 투입한 비용이 과도하여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이윤이 남지 않는 경우와, 마중물을 투입하였는데도 기업의 매출에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마중물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일부 채리피커*들에게 독점된다면 기업의 이윤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마중물을 동원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할인이나 끼워주기와 같은 기업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가격 정책에 흔들리기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단순히 마중물이 주는 혜택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 공돈 효과: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공돈)을 얻게 되면 전보다 더 위험을 감수하려는 현상.

* 채리피커: 상품의 구매 실적은 낮으면서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 혜택이나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소비자.

22.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통념의 반박을 통해 기업의 의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 ②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의 안내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 ③ 마중물 효과 이론의 변천사를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해 설명하기 위해
- ④ 다양한 경제 현상의 소개를 통해 경제 활동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 ⑤ 대상이 지닌 특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당부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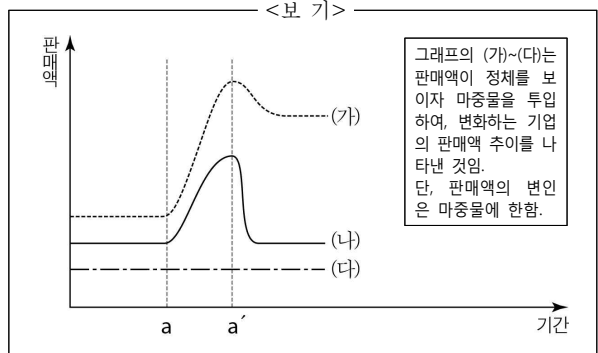
2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중물 효과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 ② 마중물 효과로 기업이 이익을 높이는 데 채리피커들은 큰 기여를 한다.
- ③ 마중물로 제공되는 혜택이 크면 클수록 마중물 효과는 더욱 잘 일어난다.
- ④ 마중물 효과는 상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 변화를 기반으로 발생한다.
- ⑤ 마중물 마케팅을 실시하는 기업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촉구하는 것이다.

24.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뱃값을 인상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
- ② 신차 구매 시 등록세를 감면해 주어 침체된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시킴.
- ③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를 올려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킴.
- ④ 각종 선심성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음.
- ⑤ 독도 주민에게 영업에 따른 세금을 처음으로 부과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히 함.

25.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나)로 보아 a에서 a' 동안에 마중물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는 기업이 의도하던 대로 이익이 창출된 경우이다.
- ③ (나)는 a에서 a' 기간 중에 판매액이 증가된 것을 보니 기업의 이윤도 증가했다.
- ④ (나)는 단기적으로 판매액이 증가되었다가 원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은 아니다.
- ⑤ (다)는 제품의 판매액이 변함없는 것으로 보아 기업의 이윤은 감소했다.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체의 운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기본이 되는 개념이 ‘속력’이다.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속력에 대한 개념은 유용하게 쓰인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여행할 때 우리는 주행 시간을 알고 싶어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여행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이다.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1시간 동안 80km를 달렸다면, 평균 속력은 80km/h가 된다. 한편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수시로 변하는데 어떤 순간의 속력을 ‘순간 속력’이라 한다. 자동차의 주행 속력계를 어느 한 순간 봤을 때 주행 속력계가 가리킨 속력이 바로 순간 속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물체의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의 크기인 속력뿐만 아니라 운동의 방향도 알아야 하는데, 속력과 그 운동 방향을 포함했을 때를 ‘속도’라 한다. 예를 들어 ‘서쪽으로 60km/h로 운동하는’, ‘동쪽으로 60km/h로 운동하는’ 것과 같이 표현하면 속도가 된다. 그러나 이 두 경우, 속력은 같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속도라 할 수 없다.

운동하는 물체가 속력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면 ‘등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그 물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등속력으로 운동할 때 이를 ‘등속도’라 한다. 이때 일정한 방향이란 직선을 말한다. 반면에 속력 또는 운동 방향이 변한다면 속도는 변한다. 물체의 속도가 단위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 한다. 이때 속도의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 것이 된다.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가 30km/h로 달리다가 1시간 뒤 35km/h로 달린다면, 이전 속력에 비해 5km/h만큼 속력이 증가했고, 같은 시간 조건에서 35km에서 30km로 달렸다면, 이번에는 5km/h만큼 속력이 감소한 셈이다.

또한 어떤 물체가 같은 크기의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꿔도 가속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동쪽으로 자동차가 30km/h로 달리다가 1시간 뒤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30km/h로 달린다고 가정하자. 편의상 동쪽을 ‘+’, 서쪽을 ‘-’로 표기할 때 속도의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 것이므로, -30km/h에서 30km/h를 빼면, -60km/h가 된다. 이는 서쪽 방향으로 시간당 60km/h만큼 속도가 변한 것이다.

한편 속도는 상대적일 수 있다. 직선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철수가 걷고 있을 때, 관찰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속도는 달라진다. 기차의 속도가 60km/h라는 말은 기차 밖에서 속도를 측정했을 때이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철수가 기차 주행 방향으로 3km/h로 걷는다면 기차 안의 관찰자가 철수를 본 속도는 3km/h이다. 하지만 관찰자가 기차 밖의 도로에서 기차 안에서 걷고 있는 철수의 속도를 측정한다면, 기차 속도에도 철수가 기차 안에서 걷는 속도를 합쳐 63km/h가 되는 것이다.

26. 밑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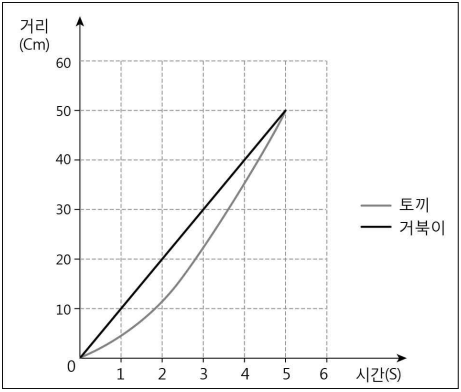
[3점]

- ① 반원 모양의 회전 구간을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
- ② 직선 도로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작점과 끝점에 속력 측정기를 설치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구간 단속은 평균 속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 ③ 서쪽으로 100km/h로 달리는 자동차와 동쪽으로 100km/h로 달리는 자동차를 도로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본 경우, 속력은 같지만 속도는 다르다.
- ④ 40km/h로 직선 운동하는 배 안에서 배의 운동 방향으로 A가 2km/h로 걷고 있을 때, 육지에 서 있는 관찰자가 A의 속도를 측정하면 42km/h가 된다.
- ⑤ 1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계속 주행 속력계를 관찰했을 때, 자동차의 순간 속력이 80km/h를 넘은 적이 없다면, 1시간 동안 평균 속력은 80km/h보다 클 수 없다.

2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똑같은 출발점에서 토끼와 거북이를 동일한 직선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게 한 후, 1초 간격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점에서 이동한 거리의 값을 다음과 같이 얻었다고 가정한다.



구분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토끼	0cm	4cm	12cm	22cm	35cm	50cm
거북이	0cm	10cm	20cm	30cm	40cm	50cm

- ① 0초에서 5초까지 거북이의 속력은 일정하다.
- ② 0초에서 1초까지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르다.
- ③ 0초에서 5초까지 토끼와 거북이의 평균 속력은 같다.
- ④ 0초에서 5초까지 토끼의 속력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 ⑤ 0초에서 5초까지 토끼는 가속도 운동을, 거북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 사조는 당대의 사회·역사적 배경 및 철학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미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변해 가는 흐름을 일컫는 말이다. 미술 사조를 통해 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조가 나타난 배경과 사상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신고전주의는 감성보다 이성을 중시한 합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에서 발생한 미술 사조이다. 신고전주의는 이전의 관능적이며 향락적인 로코코 양식에 반기를 들어 나타났다. 또한, 고대 그리스·로마 미술을 토대로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을 추구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복고적 취향을 반영하여 질서 정연한 통일감과 입체감 있는 형태로 대상을 표현한 것이 이 사조의 특징이다. 신고전주의는 역사와 신화 등에 한정되지 않고 당대의 사건을 다루는 등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여 고전주의와 차이를 두었다. 형식성을 강조한 신고전주의 그림은 엄격한 구도와 붓 자국 없는 매끈한 화면이 특징이다.

낭만주의는 19세기 전반 신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성에 반발하여 나타난 사조로 객관보다는 주관율, 지성보다는 감성을 중요시하였다. 낭만주의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 감정에 주목하여 격정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표현하였다. 낭만주의 미술은 신고전주의의 균형 잡힌 구도에서 벗어나, 비대칭 구도나 사진 구도를 사용하여 극적이고 강렬한 색채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사실주의는 19세기 후반 과학의 발달과 실증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가식적이지 않은 평범한 세속의 삶을 예술 전반의 본격적인 소재로 나타내며 등장했다. 사실주의 작가들은 낭만주의가 역사적인 사건을 개인의 주관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표현하여 현실을 그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사실주의 대표화가인 ㉠쿠르베는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으므로 천사를 그릴 수 없다.”라는 말로 이상이나 환상이 그림이 되는 것에 반대했고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주의는 사회 현실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진으로 기록하듯 묘사하였다.

이처럼 미술 사조의 변화를 통해 미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상황이나 인간 의식에 따라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술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용자는 작품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가치 있게 실현해 나갈 수 있다.

2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사실주의는 사진술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 ② 낭만주의는 작가의 이상과 환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였다.
- ③ 사실주의는 평범한 삶의 모습에서 미적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 ④ 신고전주의가 추구한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을 사실주의 미술이 계승했다.
- ⑤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이유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공동체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데 있다.

29. ㉠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유치진의 희곡 ‘토막’은 음습한 토막에서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 ② 안건의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꿈속에서 여행한 복사꽃 마을을 비단에 채색하여 묘사하였다.
- ③ 마그리트의 그림 ‘레슬러의 무덤’은 평범하고 구체적인 형상을 낯설고 모순되게 결합하여 환상의 세계를 표현했다.
- ④ 이근삼의 ‘원고지’는 인과 관계에 의한 플롯을 거부하고 과장된 소도구와 무대 장치 등을 보여 준 실험적인 극이다.
- ⑤ 푸치니의 ‘투란도트’는 이국적인 중국을 배경으로 중국의 공주 투란도트와 타타르국의 왕자가 수수께끼를 통해 사랑을 성취하는 내용을 담은 오페라이다.

30. 밑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로마 건국의 역사화이다. 삼 형제가 승리를 맹세하는 모습을 균형 잡힌 구도로 붓 자국 없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나)	 들라크루아의 <키오스섬의 학살>은 그리스 독립 전쟁을 소재로 했다. 역동적인 구도로 터키 군의 잔혹함과 그리스인들의 공포감을 강렬한 색채로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 ① (가)는 붓 자국 없이 인물들을 표현하여 인물들의 모습이 매끈하게 드러났군.
- ② (가)는 삼 형제가 맹세하는 모습을 균형 잡힌 구도를 바탕으로 질서 정연한 통일감을 드러냈군.
- ③ (나)는 그리스 독립 전쟁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화가의 복고적 취향이 반영되어 있군.
- ④ (나)의 인물들의 모습에는 전쟁의 잔혹함에 대한 화가의 주관과 상상력이 반영되었겠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였지만 (가)는 작품의 형식성을, (나)는 작가의 감성을 드러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꿈에 단니는 길히 자취곳 날작시면
 님의 집 창(窓) 맞기 석로(石路)라도 달흐리라
 꿈길히 자취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 이명환 —

(나) 벼들도 쉬여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기
 산(山)진이* 수(水)진이* 해동청(海東靑) 보르믹*도 다
 쉬여 넘는 ㉠고봉(高峰) 장성령(長城嶺) 고기,
 그 너머 넘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흐 번도 쉬여 넘
 어 가리라.

- 작가 미상 -

(다)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뵈헤 ㉠매게 또친 가토의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충*도 큰코 돛대도 것고 치도 싸지고
브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게 자자진 날에 갈 길은 천
리만리 나쁜의 사면이 거머 어둑 천지(天地) 적막(寂寞)
가치노을* 췌느의 수적(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안
과
엇그제 님 여현 ㉢내 안히야 엇다가 그을히리오.

- 작자 미상 -

* 산(山)진이: 산에서 자라 여러 해를 묵은 대.

* 수(水)진이: 사람의 손으로 길들인 때.

* 보리미: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

* 농총: 배의 돛을 올리거나 내리는 데 쓰는 줄.

* 가치노을: 석양을 받은 먼 바다의 수평선에서 번득거리는 노을.

31.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의탁하여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 ②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다.
- ④ 부정적 상황도 인식의 전환을 통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32.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近來安否問如何
 달 비친 사창(紗窓)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月到紗窓妾恨多
 꿈 속의 님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若使夢魂行有跡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 門前石路半成沙
 - 이옥봉, 「몽혼(夢魂)」 -

- ① (가)와 <보기>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와 <보기>는 상황을 가정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군.
- ③ (가)의 ‘자취’와 <보기>의 ‘자취’는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님의 집 창(窓)’과 <보기>의 ‘달 비친 사창(紗窓)’의 ‘창’은 임과의 만남을 돕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의 ‘석로(石路)라도 달호리라’와 <보기>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에서 ‘길’의 상태가 변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움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군.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 ② ㉡: 임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 화자의 처지와 대조적인 소재로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악화되는 상황의 열거를 통해 ‘도사공’의 심리적 압박이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가토리’, ‘도사공’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낭군이 이번 갔다가 노기를 띠어 돌아오니 알지 못하겠네. 노중에서 호협 방탕자를 만나 혹 봉변이라도 당하셨나이까.”

다람쥐 가로되,

“그런 일은 없으나 그대 말을 듣지 않고 다만 굶어죽을 것을 면할까 하고 가서 서대주 보고 슬픈 소리와 애련한 말로 ‘생각하기를 바라노라.’ 한즉 서대주 대답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여유가 없다.’하고 빈말로 불안한 말만 하는 중 언어 불순하고 여간 재물이 있어 집이 부요함을 드러내고 대접이 경박하니, 실사 본래 모아놓은 것이 없더라도 괴이하지 않을진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재산이 많을 뿐 아니라 요사이 천자께서 내려주신 밤나무가 사만여 주라. 나를 생각하여 시원스레 도와준다면 수백 석 줄 것이 아니요, 많으면 일이 석이요, 적으면 일이 두(斗) 줄 것이 어늘 내가 이 같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어찌 통분치 않으리오.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고 옥뿔에 죽으려도 죽을 자리가 없는지라. 내 마땅히 산군(山君)에게 송사(訟事)하여 이놈을 잡아다가 재물을 허비토록 엄중한 형벌로써 몸을 괴롭게 하여 나의 분을 풀리라.”

계집 다람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꾸짖어 가로되,

“낭군의 말이 그르도다. 천하 만물이 세상에 나매 신의를 으뜸으로 삼나니, 서대주는 본래 우리와 항렬이 남과 다름이 없고, 하물며 내위를 상통함도 없으되 다만 한 번의 만남을 생각하고 다소간 곡식을 쾌히 허락하여 주었으니 서대주가 낭군 대접함이 옛날 주공(周公)이 일반(一飯)의 삼토포(三吐哺)하고, 일목(一沐)에 삼악발(三握髮)*보다 더하거늘, 한 번도 치하함이 없다가 무슨 면목으로 또 구활함을 청하매 허락치 아니하였다고 오히려 노함도 신의가 없는 일이거늘, 하물며 포악한 마음을 발하여 은혜 갚을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관청에 송사를 이르고자 하니, 이는 이른바 적반하장(賊反荷杖)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음이라. 낭군이 만일 송사코자 할진대 서대주의 죄상(罪狀)을 무엇으로 말하고자 하느냐. 옛말에 일렀으되 지은(知恩)이면 보은(報恩)이요, 지지(知之)면 불태(不忘)라* 하니 원컨대 낭군은 고서를 읽었을진대 소학(小學)을 익히 알리라. 다시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 은혜 갚기를 힘쓰고 거친 말을 하는 마음을 버릴지라. 서대주는 본디 관후장자(寬厚長者)*라 반드시 후일에 낭군을 위하여 사례할 날이 있으리니 비록 천한 여자의 말이나 깊이 살피서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다람쥐 듣기를 마치고 크게 노하여 가로되,

“이 같은 천한 계집이 나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계집이 마땅히 장부가 욕을 입음을 분히 여김이 옳거늘 오히려 서대주를 관후장자라 일컫고 나더러 포악하다 꾸짖으니 이 내 형세 곤궁함을 보고 배반할 마음을 두어 서대주를 얻고자 함이라. 예로부터 부창부수(夫唱婦隨)는 남녀의 정이요, 여필종부(女必從夫)는 부부의 의이어늘 부귀를 따라 딴 마음을 들진대, 갈려면 빨리 가고 머뭇거리지 말라.”

[중간 줄거리: 다람쥐는 서대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의 글을 써서 백호산군에게 올린다. 백호산군은 송사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서대주를 잡아오라고 오소리와 너구리에게 명한다.]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박한지라, 서대주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는 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주더러 왈,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주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오.”

장자(長子) 쥐 왈,

“오 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聖人)도 융통성이 있나니 원컨대 오 별감은 두 번 살피라.”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주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 쥐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에 너물을 받으려면 톡톡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에 술 마시고 놀며 회롱하리오. 관령이 엄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한 잔의 술에 팔려 형장(刑杖)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수풀 사이에 앉아 종시 들어가지 않는지라. 서대주 이 말을 듣고 오소리더러 너구리를 청하러 권하매, 오소리 나아가 너구리를 이끌어 가로되,

“서대주 이같이 간청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하리오. 잠깐 들어가 동정을 봄이 좋도다.”

너구리 가로되,

“그러면 전례(錢禮)*는 어찌한다 하느냐.”

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이르니, 너구리 그제야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각이 굉장한지라. 전각에 올라 서대주와 더불어 좌정 후에 다람쥐 송사한 일을 두어 마디 주고 받더니 얼마 안 되어 안에서 술과 안주가 나오는 지라. 잔을 잡아 서로 권할새 수십 배를 지난 후에, 장자 쥐 좋은 그릇에 황금 스무 냥을 담아 서대주 앞에 드리니, 서대주 황금을 가져다 오소리 앞으로 밀어놓으며 가로되,

“이것이 대접하는 예는 아니나 서로 정을 표할 것이 없으매 마음에 심히 무정(無情)한고로 소소한 물건으로 옛정을 표하나니 두 분 별감은 혐의치 말고 나의 적은 정성을 거두소서.”

오소리 웃으며 왈,

“서대주의 관대함에 감사하던 중 이같이 후의(厚意)를 끼치시니 받는 것이 온당치 못하나 감히 물리치지 못할지라. 그러나 서대주는 조금도 염려치 말고 다람쥐와 결승(決訟)케 하면 내일 재판할 때에 우리 둘이 집장(執杖)할 터이니 어찌 다람쥐를 중죄(重罪)하여 서대주의 분풀이를 못하리오.”

하고 인하여 서대주와 더불어 떠나더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에서 ‘눈’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차가움의 이미지와는 달리 포근하고 아늑한 이미지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

- ① [A]에서 고향을 나타내는 ‘북쪽’을 ‘함박눈’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군.
- ② [B]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과 ‘눈’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부각하였군.
- ③ [B]에서 ‘너’가 있는 ‘작은 마을’의 ‘복된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축되어 있군.
- ④ [C]에서 ‘잉크병 얼어드는’ 곳에서 ‘잠’을 깬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하겠군.
- ⑤ [D]에서 ‘함박눈’이 ‘내리는가’를 다시 반복하여 고향과 그리움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군.

40. 다음을 바탕으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가정할 때,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벌레 한 마리도 밟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할머니를 따라 참깨 터는 것을 도와드렸던 어느 날이었다. ①날이 저물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나는 조금함에 막대기로 힘껏 참깨를 털었다. 그때 ②쏟아지는 알맹이들을 보면서 뜻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얻는 듯한 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③참깨를 털어내듯이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신나게 참깨를 털 때 할머니께서는 참깨의 모가지까지 털어지면 안 된다며 타이르셨다. ④할머니께서는 참깨를 털 때 술술 막대기질을 하셨다. 이는 순리대로 살아가시는 지혜였다. 할머니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10년 가까이 도시에 살면서 ⑤무엇인가를 조금하게 많이 얻으려는 도시적 삶에 익숙해 가는 나에게 할머니의 참깨를 터는 모습은 소중한 ‘꾸중’이 되었다.

-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 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쩔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열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뻘뻘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고, 결코 녀석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A]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열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윤(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엷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캡 쓰고 린네즈메리 ‘양복 입은 사나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나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도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문득 한 사나이가 등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불쾌하였다.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왔다. 그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나이의 자리를 같이 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나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가 한번 흘끗 보기에도, 한 사나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다.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효양: 어버이를 효성으로 봉양함.

* 부중: 몸이 붓는 증상.

* 전경부: 목의 앞쪽 부분.

* 팽창: 크게 부어 오름.

* 바세도우씨병: 갑상선의 이상으로 갑상선이 붓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병.

* 광무소: 광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대신 처리하는 사무소.

4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추측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해 상상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주로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 변화를 박진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되는 경험을 제시하여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갈등이 심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보와 대비되는 경제력을 소유한 것을 통해 구보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금광에 도전하여 성공한 모습을 통해 진취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통해 물질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구보를 비판하는 언행을 통해 지식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허위의식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다.
- 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을 통해 당시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는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병폐가 생겨났고 황금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런 세태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에는 이런 병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주인공은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 ‘경성역’을 찾았으나 그곳에서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군.
- ② 주인공은 역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인정이 메마르고 인간적 신뢰가 약화된 도시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는군.
- ③ 주인공은 ‘양복 입은 사나이’가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며 서글픔을 느끼는군.
- ④ ‘두 명의 사나이’를 보면서 주인공은 무직자가 양산되었던 당시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⑤ ‘이러한 문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주인공은 물질적인 가치관에 의해 타락한 현실에서 벗어날 대책을 모색하고 있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 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영수에게 수업 후에 오라고 할까? 그러면 영수가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뽀뽀 번호를 알아내어 내게 전화하라고 할까? 하지만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말할 때 더 심각해지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를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로 내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났다. 요컨대 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는가 말이다. 영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는가? 학기 시작할 때 미리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말아 달라고 한마디라도 해 줬으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말이다.

게다가 선생 체면에 학생에게 그런 말 했다 해서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쯤은 영수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사과해서 오히려 굶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중략)

“아, 글썄 기다리면서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예요!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아버지는 계속 ‘미안합니다’를 반복하고 계셨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나는 경비원을 한 번 훔쳐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지요. 이분을 자주 봐요.”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 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데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며 우리들을 배웅해 주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서로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하고 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 장영희, 「미안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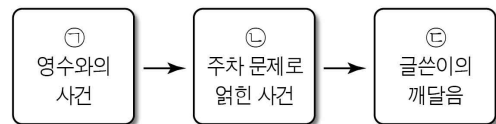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을 제시하여 교훈적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반어적 진술을 사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이상과 다른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어 내면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통해 현대인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⑤ 사건의 양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글쓴이는 일상의 경험을 계기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한다. 다음은 주요 사건과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 ① ㉠과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 글쓴이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하게 하겠군.
- ② ㉠에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던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겠군.
- ③ ㉠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영수를 이해하고 사과하려 했지만 ㉡을 보며 그 생각을 바꾸게 되는군.
- ④ ㉡을 통해 글쓴이는 ㉢에서 사과의 말이 주는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군.
- ⑤ ㉢ 이후에 글쓴이는 ㉠의 영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겠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